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대상 1인당 10만원

무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군의 이번 지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원과 다른 저소득층 대상 별도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2,420여명이다.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가구 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급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4일 기준 저소득층 2,172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으며,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강은희 팀장은 "추가 지급 대상자에 대해 추석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잘 이겨내고 저소득층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개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힘을 실어줬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장수 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추석 성수품 작황·수급상황 점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30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인력중계센터 운영현황, 코로나19 방역, 추석 성수품 작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박 차관은 장영수 군수, 김용준 장수농협조합장, 박경열 장수군조합장, 최연수 장수사과원협조합장, 박영열 장수군조합장, 동사업법인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 장영수 군수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위해 FTA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범위 확대, 인력중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영범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과수농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여러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세심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30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인력중계센터 운영현황, 코로나19 방역, 추석 성수품 작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왼쪽부터 장영수 군수,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아울러 박 차관은 "장수군에서 흉로가 안나오면 대한민국이 명절 쇠기가 어렵다"며 "장수군거점산지유통센터는 추석 성수품인 흉로의 대표 유통시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 두기 준수, 백신 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지방하천 잡풀 제거로 쾌적한 환경 조성

추석을 앞두고 무주의 지방하천이 깨끗하게 단장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방하천(남대천, 상곡천, 적상천) 구간 내 둔치, 산책로, 제방도로 및 법면, 공원 등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잡풀 제거 활동에 돌입한다.

남대천 둔치 5.56km, 남대천 제방도로 및 법면 25.7km, 상곡천 제방도로

및 법면 9.3km, 적상천 제방도로 및 법면 4.8km, 소이나무원 2만340㎡에 대해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풀 깎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풀깎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수변경관 조성은 물론 잡초 제거에 따른 유해충(진드기, 모기 등) 서식지 제거로 지방하천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과 제방도로 이용자

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재난과 하천팀 이재진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며 "군민들에게 편안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시장지구 보행환경 개선 최선

진안군, 사업 경과보고·현황·불법 주차차 개선방안 의견수렴

진안군은 지난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시장지구 보행환경 및 불법주차·정차 단속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7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이후 진안시장을 이용하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시행 전보다 개선된 점, 불편함,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과보고 및 현황, 불법주차차 단속구역 운영,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론, 기관별 사업평가 및 운영방안 관련 의견 제출 순서대로 진행됐다.

진안고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포함되어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진안을 진안시장 일원(진주로, 시장길, 시장1길, 시장2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8억(국비 9억, 지방비 9억)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보행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하여 불법 주차·정차의 근절을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교통 소통과 질서의 확립, 진안군 대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무원·민간산림업체 합동 업무 교육

진안군은 산림사업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산림사업 설계·감리 용역 수행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협조로 정확한 산림현장조사를 위한 GPS 기계 기능 및 지리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 상생하는 지역 경제 실현을 실천했다.

민간산림업체 참석자 A씨는 "관련

업무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타지역까지 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는데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용주 산림과장은 "군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큰 만큼, 산림업무 담당 직원들과 산림법인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리군 산림사업의 품질 높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산과 민간 조력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돼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산물인 홍삼과 요즘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곤충과 약용작물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추진위원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탄탄하고 건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군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9월중 사업 추진단과 액션그룹을 구성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특산물인 진안홍삼을 더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행정과 추진단 및 액션그룹 등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운영

진안군은 1일~7일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으로 운영하며 읍·면 주요 지역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지표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예방 수칙 및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1:1 건강상담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영장소는 ▲1일 진안군청 광장 ▲2일 농업기술센터 ▲3일 고속도로 마이산휴게소(장수방향) ▲6일 농협하나로마트 ▲7일 OK식자재마트 ▲보건지소 10일, 진료소 12일(내소자중심)이다. 특히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사전에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장수군은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1,530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